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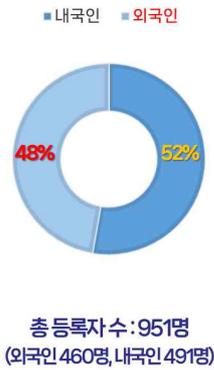
제1회 글로벌도시관광서밋 주요 성과 하이라이트

제1회 글로벌도시관광서밋은 부산광역시,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TPO), 부산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UN Tourism, 한국관광공사의 후원으로 2025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전 세계 51개국에서 951명이 등록하며 국제도시 간 교류·정책·비즈니스 협력을 포괄하는 종합 관광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국내외 고위급 대표단, 도시·기관 관계자, 글로벌 기업, 관광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도시관광의 미래 방향과 협력 과제를 논의하였다.

〈 주 요 성 과 〉

구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도		비고
			실제수치	달성율	
계량	총 참가국가 수	5 개	51 개	1020%	초청 기준: 13개국
	총 참가도시 수	10 개	22 개	220%	도시대표단 107명 기준
	총 참가자 수	400 명	951 명	238%	TPO사업 참가자 포함
	외국인 참가자 수	50 명	460 명	920%	내국인 491명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건수	1 건	1 건	100%	13개 도시 공동선언문 서명식
비계량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적 파급효과 총 41억 원(생산유발효과 23억원 포함), 취업유발효과 19명, 고용유발효과 13명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	35개사 123건 진행 (27개 관광기업, 2개 OTA, 6개 벤처투자사)			
	관광·마이스 산업 발전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자면담: 19개 도시 및 기업 참가, 27건 진행, MOU 2건 체결 동 기간 개최 지역 행사 4개 연계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글로벌도시위크, 부산글로벌도시포럼, 글로벌미식포럼, 세계문화축제 			
	글로벌 도시브랜드 지수 상승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 행사 포함 총 1,200명 참석 (서밋 950명 + 위크 150명 + 미식포럼 80명) 글로벌도시관광로드쇼 2일간 약 5,000명 참석 			

국내/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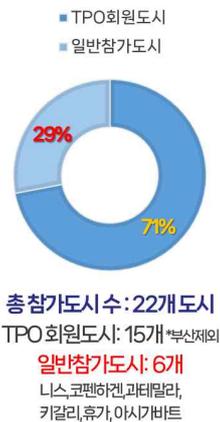
참가유형



참가국(대륙별)



참가도시



[플랫폼 구축] 국제 도시협력의 기반 조성

① 51개국인 모인 글로벌 도시관광 플랫폼 완성 - 도시 외교의 새로운 장

전 세계 51개국에서 951명이 참여하며 도시관광 분야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자리매김했다. 13개국 22개 도시가 대표단을 파견해 도시관광의 미래 정책, 전략, 로컬문화, 디지털 전환 등을 공유했다. 다자 네트워크 기반의 도시 간 협력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구축되었다.

② 고위급 대표단 중심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시장·국장급 참여 확대

시장급 대표단 15개 도시, 국장급 대표단 7개 도시가 공식 참석했다. 도시정책, 관광전략, 국제협력 과제를 직접 논의하며 도시 외교의 실질적 확장이 이뤄졌다. 고위급 네트워크가 강화되며 장기적 글로벌 도시 협력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프로그램 운영] 의제·세션을 통해 담론 형성

③ 7개의 전문세션을 통한 핵심 의제 제시 - 글로벌 도시관광 담론 형성

기조세션, 대사세션, 도시관광세션, 주제세션 I·II, 청년관광커넥트토크쇼, 특별세션 등 총 7개 세션이 운영됐다. 총 30명의 국내외 연사가 참여해 지속가능성, 디지털 전환, 로컬문화, 도시 브랜드 등 핵심 의제를 다뤘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미래 관광도시 모델이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었다.

④ 시장회담(Mayors' Roundtable) 개최 - 공동의제 및 협력 원칙 정립

14개 도시 대표가 참여해 도시 간 공통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 청년 참여 확대, 지역경제와 연계된 관광 활성화 등 핵심 의제가 중심에 놓였다. 도시 간 실질 협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면서 후속 논의의 장이 확립되었다.

[협력 확장] 도시·기관·기업 간 연계 강화

⑤ 123건의 비즈니스 미팅 성사 - 산업 협력 생태계 확대

항공, 결제, ICT, 스타트업 등 35개 기업이 참여해 총 123건(사전 매칭 86건·현장 매칭 37건)의 미팅이 이루어졌다. 신용총액 5억 원, USD 500,000 규모 투자 상담 등 실질적 경제성과가 창출되었다. 전체 상담의 92%가 후속 논의로 이어지며 산업 간 연결성이 강화되었다.

⑥ 27건의 양자면담을 통한 협력사업 기반 구축 - MOU 2건 체결

총 19개 도시·기관이 참여해 27건의 양자면담이 진행되었다. 정책·문화·투자·관광 등 세부 분야별 협력 과제가 제시되며 후속사업 추진 가능성이 확보되었다. 부산시-아고다, TPO-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의 MOU 2건이 체결되며 국제도시 간 협력 모델이 실제 성과로 연결되었다.

⑦ 글로벌관광공유대학 협력 네트워크 출범 - 다층적 관광 협력 생태계 구축

글로벌관광공유대학 협력 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하며 관광 분야의 새로운 교육·연구 플랫폼이 형성되었다. 부산 지역 21개 대학과 부산시, TPO, 아시아태평양관광학회(APTA)가 참여해 학계-지자체-산업계-청년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마련되었다. 공동 교육 프로그램, 연구 협력, 인재 교류 등 다층적 협력을 추진하는 생태계가 구축되며, 글로벌 관광인재 양성 및 도시관광 지식 허브로서의 확장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파급 효과] 브랜드·경제·참여로 이어진 외부효과

⑧ 글로벌 도시 관광 로드쇼 운영 - 5,000명 참여로 도시브랜드 효과 확대

부산과 해외 7개 도시·기관이 참여한 로드쇼에는 약 5,000명이 방문했다. 제1회 세계문화축제와 연계 진행한 이번 로드쇼에는 13개 홍보 부스, 12개 체험 프로그램, 3개 해외 공연이 운영되며 관광·문화 콘텐츠 교류가 확대되었다. 대중 친화적 체험을 통해 도시 브랜드의 현장 체감도가 크게 강화되었다.

⑨ 도시 브랜드와 국제경쟁력 제고 - 부산·TPO의 글로벌 운영 역량 부각

부산광역시와 TPO가 공동주최한 이번 서밋을 통해 두 기관의 국제행사 운영 능력과 협력 리더십이 뚜렷하게 부각되었다. 50여 개국의 도시대표단과 전문가들이 부산을 찾으며 도시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었고, TPO의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운영 경험 역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두 기관이 함께 구축한 도시관광 협력 플랫폼은 향후 국제행사 유치와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에 전략적 자산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⑩ 지역경제·고용 창출 효과 확인 - 생산 23억·고용 12명·취업 18명

행사 기간 총 4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분석되었고, 생산유발효과는 23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고용유발효과 12명, 취업유발효과 18명이 발생하며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국제행사 개최가 지역 관광·MICE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